

이재명, 수도권 표심 잡기... 김문수, 경부선 따라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성남 분당 아람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부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 마지막 표발같이... 여의도공원·서울시청서 피날레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표발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는 점,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자신의 정치이력을 상기 시키며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소화했다. 계엄 해제의 상징성을 부각하며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선거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이날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북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성남주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또 광명 유세와 서울 강서·양천구 유세를 거쳐 여의도공원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소수석대변인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

라 올라가는 국토 중남유세를 펼쳤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대구를 거쳐 대전과 서울에서 중도층 표심까지 모두 아우르며 막판 표몰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동선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대선 후보로서 김 후보가 제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에 대해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다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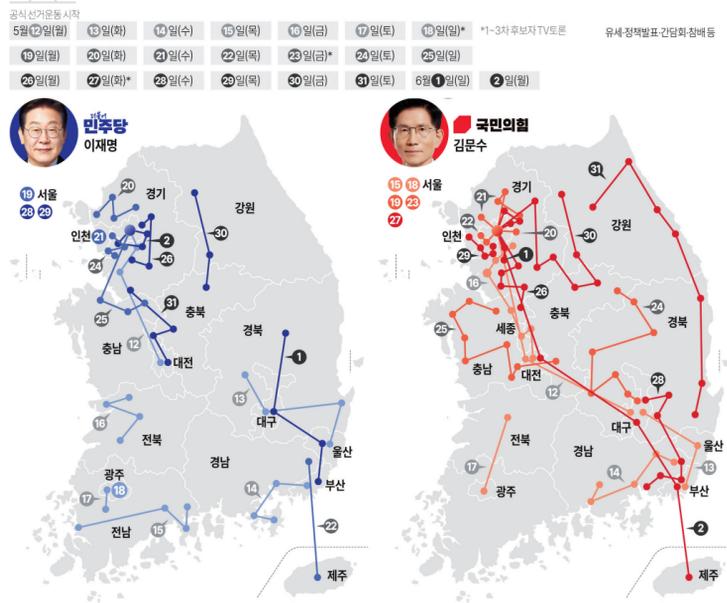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4·3을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유족들은 '참배 거부' 피켓을 들고 김 후보에게 거센 항의를 했다.

이날 김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파이널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위해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를 찾은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 선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5 대선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 동선



이 후보는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든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기 행사를 마친 뒤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20·30세대에게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고, 대구로 이동해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혜경 여사, 조용한 내조

진우 스님·염수정 추기경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을 만났다.

진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주교관에서 염 추기경을 예방하고, 선거 운동 과정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후 종로구 한국대학생선교회 회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전국의 주요 사찰과 성당, 교회 등을 방문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